

中國經濟改革의 綜合分析 및 展望*

李 華 夏

壹. 머리말

貳. 경제개혁의 성과

參. 경제개혁의 폐단

肆. 결론과 경제개혁의 미래방향

壹. 머리말

중국문제를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와 경제의 一元化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체제와 권력구조를 대표하는 정치조직이 고도로 융합하여 일종의 권력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므로¹⁾ 경제는 정치의 부속물이 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경제개혁을 추진해온 이래, 改革策略의 선택상 그간 줄곧 全面, 綜合, 協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 체제개혁의 목적은 제도고무, 자원배치 및 이익분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앞서 말한 양자와 후자간의 비협조는 체제개혁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 (1) 만약 개혁에 있어서 일부분의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암암리에 그것을 저지하게 될 것이다.
- (2) 분배의 불공정은 각기 다른 이익집단간의 마찰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킬 것이다.
- (3) 현존하는 경제질서를 분란케 할 것이다.

* 이 論文은 第12次 韓中學術會議 第3會議에서 主題發行人인 것임.

1) 여기에서 말하는 體制는 經濟, 政治, 社會구조의 분과 운용규칙을 포함한다.

(4) 현존하는 이익구조의 파괴는 사회동요를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중국대륙 전체 개혁의 思維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점에 둘러싸이게 된다.

一. 개혁은 分期적으로(예를들면 단기, 중기) 목표를 확립한다.

二. 개혁은 단계를 나누어 실시한다.

(一) 우선 옛것을 타파: 각계, 각유형의 행정이 조직을 독점하는 것을 개혁한다.

(二) 새로운 것의 재창조: 중국대륙의 특수상황에 의지하여, 이미 조직이 방대하게 되어 지휘하기 힘들게 된 지방분권국면을 자연스러운 分級관리와 分層 추진책략을 채택하므로서 아래 3개 항을 확립한다.

1. 중앙정부는 이익분배제도의 규범과 전대륙 통일시장의 건립을 주로 책임진다.

2. 획일적으로 이어 내려온 公有制를 분해한다.

3. 중앙정부는 조절통제의 중점을 總量, 구조 및 시장통일의 운용에 둔다. 區域시장과 기타 個體경제의 관리는, 주로 도시 위주의 각급 정부에서 책임진다.

三. 개혁의 보조가 안정기에 진입했을 시 중점돌파를 실시해야 한다.²⁾

아래에서는 10여년간에 걸친 경제개혁의 성과, 폐단 및 미래전망에 대한 종합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貳. 경제개혁의 성과

一. 중국「國家計委體改司」의 조사에 의하면, 1989년 공업총생산중 指令性計劃은 17%; 「國務院」의 각부처와 각 省市의 指導性計劃은 43%; 市場調節은 40%를 각각 차지했다.³⁾ 1989년과 1978년을 비교해보면, 총재정

2) 田夫(1990) 참고.

3) 馮更新(1990) 참고.

수입이 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37.2%에서 22.2%로 떨어졌으며; 재정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9%에서 39.0% 전후로 떨어졌다. 중앙이 장악하고 있는 외화수입은 단지 전중국 외화수입의 40.0%만을 차지할 뿐이다. 또한 통괄분배물자의 품목별 종류와 수량이 대폭 하락하여「중앙」의 통제력 쇠퇴와 행정명령의 쇠퇴를 나타내고 있다.

二. 만약 總體指標로 경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1979년에서 1989년까지 불변가격에 준한 국민생산 총생산치는 연간 9.0%성장, 공업 총생산치는 연간 12.4%성장, 농업 총생산치는 연간 5.9%성장으로 모두 1953년에서 1978년 사이의 6.1%, 11.2%, 3.2%에 비해 높다. 만약 이러한 연간 성장율이 모두 총액에 속하여 중복계산의 폐단이 있다고 말한다면, 순수금액개념의 국민수입으로 바꾸어 보아도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表一에서 각기 다른 생산요소의 성장이 국민수입성장율에 대한 공헌을 알 수 있으며, 아래 두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一) 종합요소 생산율이 개혁기에 있어서의 공헌(년평균 증가율 56%)은 개혁전의 공헌(년평균 증가율 0.01%)보다 훨씬 높다. 이는 개혁후 격려제도가 생산효율의 제고를 가져왔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二) 개혁전기에 있어서 종합요소 생산율(32.35%)은 개혁후기(23.76%)보다 크다. 그 원인은:

1. 개혁전기에는 과거 20여년동안 축적되어온 잠재 能量이 있기 때문에 일단 物質誘因의 자극을 받게되면 그 효율은 대폭 제고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전기 농촌개혁의 성공으로 장기간 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농업생산을 돌파하게 되었다.
3. 전기의 각종생산비례가 비교적 잘 융합되어 경제성장의 효율이 비교적 양호했다.

表一：國民收入 성장에 대한 각 생산요소의 공헌

時 期	國 民 收 入 成 長 率	勞 動 投 入 增 加 的 貢 獻	資 本 投 入 增 加 的 貢 獻	綜 合 要 素 生 產 率 增 長 的 貢 獻
全 期 1953-1989	6.75 (100)	0.81 (12.00)	5.29 (78.37)	0.65 (9.63)
改 革 前 1953-1977	5.98 (100)	0.77 (12.88)	5.20 (86.96)	0.01 (0.16)
改 革 期 1978-1989	8.91 (100)	0.86 (9.65)	5.49 (61.62)	2.56 (28.73)
其 中： 前 期 1978-1984	8.78 (100)	0.88 (10.02)	5.06 (57.63)	2.84 (32.35)
後 期 1985-1989	9.09 (100)	0.84 (9.24)	6.09 (67.00)	2.16 (23.76)

註：괄호안의 숫자는 각 요소의 공헌율

자료：張軍壘(1991)

4. 개혁후기에는, 한편으로 개혁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피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협조가 결핍되었으며, 이는 경제관리체제의 기능에 손상을 입혀, 결국 총체경제효율의 하락을 가져왔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발전방침상 고속을 추구하여, 경제성장의 큰 기복현상을 야기시켰으며, 각종 생산비율에 있어서 심각한 균형상실로 경제효율은 자연히 하락하게 되었다.

三. 생산효율의 제고는 대륙주민의 소비수준 또한 1953~1978년 사이의 년증가율 2.2%에서 1979~1989년간의 년증가율 6.9%로 제고시키고 있다. 개혁이래로 주요 식용소비품과 의류소비품의 1인평균소비량은 개혁 전에 비해 거의 배가 증가했다. 表二의 장기사용 소비품의 년말 사회보유량의 변화는 개혁의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表二 : 중국대륙 장기사용 소비품의 사회보유량

단위 : 만대

항 목	1978	1988	1989
재봉틀	3,396	12,897	13,573
시 계	8,200	51,473	55,704
자전거	7,426	33,312	36,515
세탁기	1	7,464	8,701
냉장고	9	1,927	2,554
T. V.	304	14,344	16,593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년판

四. 일반적으로 농촌개혁이 농민에 대한 이익으로 聯產承包制의 추진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중국당국이 개혁전 농민에게 「주는 것」보다 「취하는 것」이 많은 분배방식을 조정했다는데 관전이 있다. 조사에 의하면⁴⁾ 1950~1978년 동안 중국당국은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甲. 농산품의 저가 통괄구매정책을 통해 농민으로 부터 5,293억원을 착취했다.

乙. 농업세(그러나 「일정부담으로 증산부분에 대해서는 세를 증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함)를 통해 819억원을 뽑아냄.

丙. 통괄수입, 통괄지출이라는 재정체제로 농업에 대하여 진행한 투자(재정총지출에서 10~12%수준을 유지) 누적금액은 1,577억원에 이른다.

甲 $\oplus$ 乙 $\ominus$ 丙=4481억원으로, 즉 이기간 동안 농업국민수입에서 유출된 순수 금액만도 국민수입의 18.2%를 점하고 있다.

이와는 상반된 1979~1988년의 개혁기간 중,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甲. 농산품수매가의 인상, 수매량의 하향조정 및 시장협의 가격범위의

4) 蘇明, 蕭安妮(1990) 참고.

확대등 정책으로 농민의 수입은 6,317억원이 증가했다. 만약 공업품(농업용 생산재 포함) 가격상승으로 인해 지출된 4,429억원을 제하면, 농민들의 순수수입은 약 1,888억원에 이른다.

乙. 세금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실시 및 빈곤한 山區에 대한 우대조치 실시와 더불어 각종재해감면, 사회감면조치 후, 실제 세금징수액은 394억원이다.

丙. 농업용 생산재의 가격보조정책(농업용 전기, 각종 농기구, 농약, 화학비료등을 우대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의 실시로 누적된 보조금액수는 298.5억원에 이른다.

丁. 비록 농업투자가 재정지출의 비율에서는 하락되었다고 하나, 총투자금액은 여전히 1,508.07억원에 이르고 있다.

戊. 실사 工·農產品의 鉅狀價格差(독점가격과 비독점가격의 차이가 위를 벌인 것처럼 증대해지는 현상)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하더라도 농민수중으로부터 4,000억원을 수탈한 바 있다.

甲 $\oplus$ 乙 $\oplus$ 丙 $\oplus$ 丁 $\oplus$ 戊=699억원, 개혁후 농업국민수입의 순수유출금액이 여전히 국민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민의 부담은 이미 크게 경감되었다.

따라서 농촌 1인당 평균순수입은 1979~1988년간 년 11.8% 성장하였으나, 같은 기간 도시거주민의 년평균 성장은 6.5%에 머물러, 도시와 농촌의 생활차이는 개혁전의 2.9:1에서 2.2:1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개혁이 진실로 이와 같은 좋은 면만 있는 것인가? 이는 그렇지 않은데 다음의 분석을 보기로 하자.

參. 경제개혁의 폐단

一. 개혁전, 중국이 실행한 고도로 집중된 경제관리체제는 정부가 엄격한 指令性計劃과 통괄수입, 통괄지출의 재정체제를 통해 全중국 대륙의 區

域 경제발전과 구성에 대해 통일된 안배를 진행하는 것이었으며, 지방의 이익은 총체이익에 직접 부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야기된 문제, 예를 들어, 공업에 있어서 자체완성체계의 추구로 「大而全,小而全」(큰것은 큰대로 완전하고, 작은것은 작은대로 완전하다는 뜻으로 기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인원, 자재등 모든것을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조달하는 것을 말함)의 상황을 조성한 것은 주로 경제지도사상상의 편차와 총체구성 정책결정상의 부당함에 기인한다. 그러나 시장분리현상은 한번도 발생되지 않았다. 개혁후,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부추기기 위해, 수매임무를 완성한 후의 양식에 대해 자유매매를 허용했다. 갑작스런 集市(농촌이나 소도시의 정기시장)무역의 활발로, 식량가격이 하락할 시, 일부 생산양식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세관을 설립하여 식량과 기름의 외부유출을 막았다.

二. 재정의 분리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수입의 주요 근거인 자체 공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상황을 낳았으며, 공업의 수입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지역 공업품의 판로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같은 현상은 상품시장상 분할과 봉쇄 조치의 출현으로 반영되었다.⁵⁾

三. 왜곡된 가격체제와 지역간 불평등경쟁은 시장의 분할을 더욱 촉진시켰다. 왜냐하면 工·農產品의 協商價格差가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관계로, 지방정부는 그지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봉쇄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그지역의 실업을 피하기 위해 高消耗, 低效益의 가공공업에 전력투구하였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낙후된 가공품은 경쟁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워지므로, 그 지역 정부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상벌제도를 마련, 국영상업과 공급판매합작사로 하여금 수매하도록 조치하고, 외지의 固類先進商品의 경영을 엄격히 규제하므로써 기초공업과 기초시설의 배합가능 여부는 조금도 고려치 않았다. 예를 들면 철로운송량의 성장속도와 공업성장의 비율이 이전에는 0.5전후였으나 1988

5) 黃田華, 姜兆南(1990) 참고.

년에는 0.18로 떨어졌으며, 1986년 이후 에너지 공업의 성장율은 비록 5.1%로 (그중 석탄공업5.3%, 전력공업9.6%) 그 성장이 낮지는 않은데도, 가공공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원재료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四. 이리하여 어쩔 수 없이 「價格雙軌制」(이중가격제)⁶⁾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행초에는 이중가격의 차이가 약 30~50% 정도로 크지는 않았으나, 중국당국이 확장성의 총체경제정책을 추진하므로써, 사회총수요가 사회총공급을 크게 초과하게 되어 국가 표시가격의 변동은 크지 않았으나, 계획의 產品의 시장가격이 급상승하여, 많은 물품에 있어서 가격차가 1배이상이었고, 최고 3~4배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가격차이의 확대는 기업, 관련부처, 지방정부간의 이익에 명확히 저촉되었고, 풍기문란을 야기시키는 등 각종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다.

五. 家庭聯產承包經營責任制의 실시는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자유경영 적극성에 충분한 자극을 주었으며, 농촌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과연 촉진작용을 발휘했으나, 이같은 국가관리, 集體所有 및 농민이 단기간 사용하는 경지제도는 오히려 농촌간부 대부분의 낮은 자질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후유증을 발생시켰다.

- (一) 경지의 하청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가정인구변화가 빨라, 90%이상의 농가경제수입이 주로 토지에 의거하게 되어,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떠나는 이외에 별다른 생계 도모수단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야기시켜, 가족계획과 농촌잉여 노동력의 이전에 모두 불리하게 되었다.
- (二) 분산되고 조각난 경제의 하청과, 농업생산의 專業化, 集體化경영의 불협화음으로 농지기본건설, 수리관리 및 식량생산량이 제고될 수

6) 사실 중국대륙에서 「價格雙軌制」(이중가격제)의 유래는 이미 일찍이 있었던 일이다. 즉 과거 농민들은 규정에 근거하여 고시가격에 따라 농산품을 정부에 판매하고 난 뒤 잉여농산품을 정가시장에 내다 판 것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1985년 이후 실행된 공업생산재의 정가를 말한다.

가 없었다.⁷⁾

六. 공업성장이 빠르고, 주민들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여러부류의 사회구성원들의 수입분배 불균형은 대중들의 보편적인 불만을 야기시켰다. 현재 중국의 분배방식에는 두가지 체계가 있다. 즉, 정부분배 체계와 시장분배체제로 전자는 수입평균을, 후자는 수입에 큰차이가 있게 된다. 최근 몇년동안 중국은 상대가격을 부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각기 다른 기업의 경제효익으로 하여금 큰 기복 현상을 발생케 했다. 어떤 기업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 기본임금조차도 주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적자를 흑자로 돌려, 임금이 오를 뿐만아니라 현물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평가에 의하면 이와 같이 남발부분은 직공임금의 15~20%에 상당한다고 한다. 또 어떤 기업의 책임자는 직권을 이용해 자신의 임금과 보너스를 증가시켜, 그 액수가 일반 직공에 비해 20여배에 이르고 있다. 어떤 사업기관, 예를 들어 과학연구소, 학교, 설계, 병원등의 직공들은 제2의 직종에 종사하여 그 수입이 본업수입의 1~2배에 상당한다고 한다. 또한 個體와 私營企業주들의 수입은 그 고용자들에 비해 수십배에서 백배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다. 조사에 근거하면, 個體戶의 월평균수입은 일반직공의 3.8배에 달하며, 어떤 직종은 심지어 7.5배에 달한다고 한다.⁸⁾

七. 상술한 내용은 그래도 정당한 수입의 차이지만, 조사에 의하면 80%의 個體戶가 탈세에 관련되어 있고, 국영기업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수입의 성장은 소비수요의 팽창을 수반하여, 물가는 자연적 오르게 마련이다. 「國家統計局」이 중국대륙의 일부 도시 직공에 대해서 실시한 발체조사에 근거하면, 통화팽창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수준의 하락을 가져온 가정이 전 조사 대상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20%에서 1987년에는 34.9%로 확대되었다고 한다.⁹⁾ 수입이 하락한 주민들은 주로 제2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직공과 저임금을 받는 퇴직한 직공이었다.

7) 石成林(1990) 참고.

8) 練峯(1990) 참고.

9) 國家計委經濟研究中心課題組(1989) 참고.

八.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개혁으로 인하여 축소되었다. 그러나 만약 Gini계수로 밝힐 경우, 도시주민과 농촌농가간의 차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1980년 도시와 농촌의 Gini계수는 각각 0.16, 0.24였으나, 1988년에 이르러 이미 0.23과 0.30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농촌의 분배 불균형이 도시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九. 농민수입중, 만약 東,中,西部 경제 지대별로 볼 때, 1980년경, 東,中,西의 비율이 1.28 : 1.06 : 1이었으나, 1988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1.61 : 1.15 : 1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지대간의 수입차이가 현격한 주요원인은 지리적인 위치, 자원분배등 자연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 외에, 많은 부분이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동부지구의 농민수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제2, 제3차 산업에서 획득한 것으로, 특히 鄉鎮企業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제1차산업 내부에서 얻는 수입은, 상술한 3개 경제지대간에 별 차이가 없다.¹⁰⁾

十. 마지막으로 특별히 고려할 것은, 중국대륙의 Gini계수가 나타내고 있는 빈부차이는 국제적인 각도에서 평가할 때 매우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여전히 公有制경제에 속하며, 개인은 많은 재산이 없으며, 수입의 차이는 주로 개인의 투입(자격, 학력, 기교, 능력등)에 의한 차이와 개인저축에 의해 현저하게 되므로, 따라서 Gini계수가 높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 1인당 국민수입이 200~1,200달러인 발전단계의 公有制經濟에서 관찰한다면, 최고가정수입과 최저가정수입의 비율이, 1956년 소련이 3.82, 1966년 폴란드 3.37, 1967년 헝가리 4.02이며, 1986년 중국은 이미 6.05에 달하고 있어 빈부차이가 현저히 높다.¹¹⁾ 문제는 Gini계수의 확대가 만약 순수히 個人投入과 그 저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특권의 경로를 통해 획득되었을 시, 반영하는 것은 사회가 여전히 저효율생산에 처해있고, 작업의 적극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사회불안정세가 만연되어 있다는데 있다.

10) 邱曉華, 萬東華(1990) 참고.

11) 陳炳才(1990) 참고.

肆. 결론과 경제개혁의 미래방향

근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개혁은 과거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행한 임의성 조정에 비해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점에서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 一. 所有制上, 단일소유제 관점을 탈피하여, 公有制 위주를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多種經濟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二. 경제운용상, 計劃과 商品經濟의 대립관념을 탈피하여, 計劃經濟와 市場調節의 상호결합이라는 타협을 창조했다는 점이다.
- 三. 분배영역상, 평균주의의 틀을 탈피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를 主體로 하고, 多種分配形式을 병존시키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 四. 경제관리상, 人, 財, 物의 통괄관리, 통괄수입, 통괄지출이라는 고도집중형태를 탈피하여, 초보적으로 집중과 분산을 서로 결합하여, 責(지위), 權(권력), 利(이익)의 상호유동적 方式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혁책략상,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부분적인 「위반」 혹은 「규정을 넘어서」행위라는 방법에 의한 개혁추진을 允許, 特許, 혹은 默許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혁중에 출현한 상황에 대해 반응이 민감치 못하여,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긴급(임시)조치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반복을 형성하여, 경제개혁이 政治, 社會, 文化등 비경제적인 요소의 간여를 지나치게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래의 총체경제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1. 먼저 일부 생산제와 농산품가격의 심각한 불합리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2. 中央과 地方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효과있게 통제함으로써, 생산요소의 고효율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4. 稅收政策으로 국민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조절해야 한다.
5. 노동력시장에 경쟁기능을 도입하며, 아울러 공평한 사회실업보장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6.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參考文獻

1. 田夫, 「十年改革的回顧與前瞻」, 社會科學參考, 1990, 西寧.
2. 金汶, 「改革開放是發揮社會主義優越性的必由之路」, 江淮論壇, 1991, 安徽.
3. 馮更新, 「略論我國十年經濟體制改革的成就和問題」, 鄭州大學學報, 1990, 鄭州.
4. 張軍壘, 「七五期間經濟效益的綜合分析」, 經濟研究, 1991, 北京.
5. 蘇明, 龔安妮, 「國家與農民‘取’‘予’分配格局的變化和我們的看法」, 調研資料, 1990, 北京.
6. 黃田華, 姜兆南, 「我國區域經濟發展和布局的回顧與展望」, 經濟工作者學習資料, 1990, 北京.
7. 中國社科院財貿所「價格改革」課題組, 「生產資料價格雙軌制向何處去」, 成本與價格資料, 1990, 北京.
8. 石成林, 「關於深化農村土地制度改革的理論探討」, 理論內參, 1990, 瀋陽.
9. 練岑, 「改革十年我國居民收入狀況, 問題和治理」, 經濟資料, 1990, 北京.
10. 武樹軾, 陳吉江, 「關於我國個體私營經濟的現狀, 問題及對策研究」, 經濟研究參考資料, 1989, 北京.
11. 國家計委經濟研究中心課題組, 「消費需求的結及其治理」, 計劃經濟研

究, 1989, 北京.

12. 邱曉華, 萬東華, 「近十年我國收入分配的特徵和問題」, 計劃與管理, 1990, 成都.
13. 陳炳才, 「對我國收入分配中幾個認識問題的評判」, 計劃經濟研究, 1990, 北京.